Togzhan Kassenova, Atomic Steppe: How Kazakhstan Gave Up the Bomb, Redwood C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2022. 384pp.

토그잔 카쎄노바, 「초원의 핵: 카자흐스탄은 어떻게 핵무기를 포기했나?」, 스탠퍼드대학출판부, 2022년. 384쪽.

이웅현 고려대 세계지역연구소 연구교수

'지옥의 유산'에서

「스탈린과 핵폭탄(Stalin and the Bomb)」(2008년)으로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의 역사학자 데이비드 홀로웨이(David Holloway)는 갑작스런 소련의 해체(1991년)로 옛 소비에트공화국들에 덩그러니 남겨진 핵무기와 핵물질 그리고 핵시설을, R. 마고(R. Margot)의 동명의 소설 제목을 차용하여 '지옥이 남긴 유산(inheritance from hell)'이라고 불렀다. 카자흐스탄에게 이 달갑지 않은 '유산'은 말 그대로 '지옥'이 남긴 저주였다.

소련은 1949년 아름다운 초원의 나라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평원지대에 핵실험 및 핵시설 기지 '폴리곤(Polygon)'을 건설했다. 당시에는 12만 명이 나중에는 35만 명이 거주하게 되는 세미팔라틴스크에서 불과 120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고, 폴리곤의 넓이는 18,500㎢였다. (서울에서 세종특별자치시까지의 거리가 대략 세미팔라틴스크-폴리곤 사이의 거리와 비슷하고, 폴리곤의 면적은 경상북도의 넓이와 비슷하다.) '다각형'이라는 뜻의 이 기지와 세미팔라틴스크를 포함한 주변 지역은 약 반세기 동안(1949-1991년) '지옥' 그 자체였다.

토그잔 카쎄노바는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물론 '지옥이 남긴 유산'의 처리 과정을 384쪽의 저서 「초원의 핵」 1부와 2부에 나누어 담았다. 제1부('러시아의 지배, 핵실험의 상처들: 러시아 그림자 속의 카자흐스탄')와 제2부('해방의 여명 그러나 여전한 무기고')를 엇비슷한 분량으로 기술한 것은 지옥이 남긴 고통만큼이나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유산의 처리과정도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제1부의 다섯 개 장은 카자흐인들이 경험해야 했던 '지옥'이 어떤 것이었는가에 관한 처절한 기술이다. '다각형'이라는 뜻의 이름이 붙여진 이 지역에서 소련은 1949년 여름 최초의 성공적인 핵실험을 포함 1991년까지 456회의 핵실험을 실시했다(제1장). 횟수로 보면 한두 달에 한 번꼴로 1년에 평균 8-9회의 실험을 했다는 뜻이다. 지옥의 불이 거의 꺼지지

본 글의 내용은 모두 개인의 의견으로, 소속기관이나 학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

않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카자흐 인민 수백만 명이 유형, 무형의 피해를 입었다(제2장).

거듭되는 핵실험으로 자연과 동식물, 사람이 방사능에 오염되었고,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각종 질병 즉 암, 유산, 기형아 출산은 물론 자살 및 정신질환의 증가 등에 관한 보고와 증언이 잇달았다(제3장). 이에 대한 카자흐인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소련정부는 무자비하게 탄압했으며, 이러한 비극적 상황은 1991년 소련이 공중 분해될 때까지 지속되었다(제4, 5장).

'위대한 유산'으로

이 '지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리고 '지옥이 남긴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2부의 다섯 개 장은 신생 독립공화국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악마의 상속재산을 평화와 안보의 확보라는 위대한 유산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과정에 관한 긴장감 넘치는 서술이다. R. 마고가 묘사한 극복의 과정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았지만, 카자흐스탄 앞에도 끝없이 장애물은 나타났다,

1991년 카자흐스탄이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핵무기와 핵시설, 핵물질은 신생공화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각각 최대 10개의 다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104기, 12톤 무게의 핵폭탄을 장착하고 미국까지 비행할 수 있는 폭격기 42기가 남겨졌다. 요컨대 발사대기 상태의 전략 핵탄두 1400개가 카자흐인들의 손에 맡겨져 있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제2위의 우라늄 자원보유국이었고, 소련이 건설한 우라늄 농축(HEU) 시설과 플루토늄 재처리시설도 가동하고 있었다. 문제는 카자흐스탄의 과학기술적, 정치경제적 능력으로는 이러한 방대한 유산을 관리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어차피 활용할 수도 관리할 수도 없는 악의 유산은 미국으로부터 카자흐스탄의 안보와 경제적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흥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제6장).

카쎄노바는 핵무기와 핵시설에 관한 한 이용 능력도 관리 능력도 없는 카자흐스탄이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의 약속과 최대한의 경제적, 인도주의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미국과 소련 사이에 1991년 7월에 체결돼 있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을 (벨로루스, 우크라이나와 함께) 카자흐스탄이 추인하는 과정(제7장), 핵확산금지조약(NPT) 내의 지위를 둘러싼 미국과 카자흐스탄의 협상 과정(제8장), HEU의 미국으로의 이송작전(제9장) 등을 긴장감 가득한 문장으로 기술하고 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무기여, 안녕!」의 제목을 차용한 '(핵)폭탄이여, 안녕!'(제10장)에서는 이후 지속된 미국과 카자흐스탄의 협력을 포함한 상세한 해체와 이전 과정을 다루었다.

카쎄노바의 경고와 한계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벨로루스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994년 NPT에 가입했고, 1996년까지는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겨 비핵화를 완료했다. 옛 소련 세 공화국의 비핵화는 사실 소련의 해체 그 자체보다 인류의 평화와 안전의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더 중요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화국들의 핵무기 포기과정은 부수적인 사건 정도로만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은 카쎄노바의 분석처럼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핵무기 관리능력이 부족했고 따라서 핵무기와 핵물질의 유출, 확산 가능성도 커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대상이었다. 인류와 핵무기의 주종관계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사건이 잠복한 나라였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All contents of this article are personal opinions, not official opinions of institutions or academic societies

카쎄노바는 "그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간 과거의 비핵화 노력이 없었다면 현재의 모든 것이 뒤바뀔 수도 있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는 역사적 사건이었음에도 외견상의 결과가 잘 알려져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건을 분석하는 연구자가 독창적 연구를 위해 취하는 방법은 대체로 두 가지 중 하나다. 하나는 기존의 연구들이 놓치고 있는 새로운 사료를 동원하여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긴박감 있는 서술로 실제로는 사건의 전개가 그리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카쎄노바는 두 가지 방법을 병용한다. 관련 인물들과의 인터뷰, 그들의 회고록, 카자흐스탄과 미국의 아카이브 자료 그리고 신문기사 등 방대한 자료를 동원했고, 특히 제6장 이후는 이미 그 결과가 알려진 사실을 긴장감 넘치는 방법으로 재구성하면서 나머지 한 방법도 구사한다.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과정에 피상속자의 법통계승자인 러시아의 주장과 입장이 강하게 개입되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충만해서 「초원의 핵」 첫 페이지를 넘기는 연구자는 약간 실망할 것이다. 또한 '지옥이 남긴 유산'을 '평화의 보상'으로 대체해 나간 모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역사연구자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서술에 드리운 그림자도 보인다. 사실 카자흐스탄 대통령 나자르바예프와 그의 측근들이 외교적 수완으로 얻어낸 보상이 미국이 예상하고 있던 지원과 양보의 한계를 놀라울 정도로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첫 번째 퍼즐 조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쎄노바의 연구는 분명 '핵으로 인한 카자흐스탄의 고통과 핵무기 포기의 과정'이라는 거대한 퍼즐 맞추기의 사실상 첫 번째 조각이다. 미국과 카자흐스탄이 '지옥이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긴박하게 '밀고 당기기(pulling and hauling)'를 거듭하던 시기로부터 어언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카자흐스탄의 핵 포기'를 주제로 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 온라인(킨들) 판으로 데빈 룽(Devin Leung)의 「나자르바예프와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다른 변수들(Nazarbayev and Kazakhstan's Nuclear Disarmament: Rational Actor Model and Other Variables)」(2017)라는 연구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론(모델)을 우선하는 국제정치학 초심자의 작품이어서 중앙아시아나 핵문제에 관한 역사연구자에게 주는 힌트나 임팩트는 거의 없다.

카자흐스탄의 핵무기 포기과정의 연구에 관한 한 첫 걸음에 해당하는 카쎄노바의 이 책을 읽고 난 후, 같은 해 출간된 마리아나 부디예린(Mariana Budjeryn)의 「물려받은 핵폭탄: 소련의 붕괴와 우크라이나의 비핵화(Inheriting the Bomb: The Collapse of the USSR and the Nuclear Disarmament of Ukraine)」를 읽는 독자라면 그리고 그 독자가 진지한 연구자라면, 단언컨대 벨로루스의 핵무기 포기과정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을 만들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다.